

나의 농민운동 이야기

오 덕 훈(농민, 전 경북 기농 총무)

강호(江湖)에 병이 깊어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竹林)에 누웠더니.....”

유명한 조선시대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첫 머리에 나오는 구절이다. 나는 고등학생 때 국어, 그 중에서도 고문(古文)을 특히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이 ‘강호에 병이 깊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다. 다만 병이 들어 시골에서 산다는 말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 알고 지나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다.

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광주항쟁이 일어나기 한달 전인 1980년 4월 17일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부터이다. 물론 그 당시에 도 농사꾼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고졸 출신으로 갓 군에서 제대한 형편에 취직 자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간 농사를 지어 돈을 모아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군에서 제대한 한창 나이의 내 눈에는 농촌이 온통 돈 되는 것들로 가득했다. ‘머리만 잘 쓰고’ ‘자기만 잘하면’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는 데도, 어렵게 살

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이해 할 수 없었다. 내가 한번 보란듯이 몇 년 벌어서 나는 공부하러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촌에서 나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를 거들기는 하였지만, 막상 내가 직접 하려고 보니 아는 게 너무 없음을 알았다. 파종은 언제 하는지, 논 밭 장만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작물을 심은 뒤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게다가 기존의 벼농사만이 아니라 새로운 작목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농촌지도소를 찾아 교육을 받고 4H 활동도 열심히 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농민들을 교육에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시지도소 공무원들은 내가 모든 교육에 빠지지 않고 다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는 바람에 한 시름 덜었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 약초와 옥수수, 감자 등 당시만 해도 우리 마을에선 상업적으로 하지 않던 농사들을 시작했고, 경운기, 동력분무기 등 농기계도 꽤 장만했다.

그러나 3년 후인 1984년 9월, 나는 농사지은 것을 추수도 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갔다. 아무리 계산을 해 보아도 이 농사를 가지고는 그 동안 불어난 빛의 이자도 감당이 안될 것이 분명했고, 더 이상 농사지을 맛이 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서울로 가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나을 듯 했다.

농민운동과 만나다

서울이라고 누가 직장 잡아놓고 불러서 간 것도 아니고 막막하였으나, 우선 숙식을 해결해야 했으므로 고향 친구가 점원으로 있는 용산시장의 고추가게로 가서 숙식을 해결하며, 겨울엔 군고구마 장사도 하고, 아는 분의 소개로 당시 한강 모래 채취장에서 일도 하였다. 그러나 돈벌이논쟁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왕 서울에 온 김에 공부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하며 밤으로 관련 강의도 들으러 다니다 보니, 일자

리를 구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제약조건이 많았다. 더구나 괴로운 것은, 봄이 되어 농사철이 되자 두고 온 부모님과 농사일이 걱정되는 것이었다.

“지금쯤 못자리를 할 때겠구나...”

“논 갈고 로타리쳐야 할 때인데...”

“밭에 거름은 내었는지...”

머리가 허연 부모님이 내가 없이는 경운기도 못쓰실 텐데, 고생하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늘 편치 않았다. 게다가 그동안 몸에 밴 농촌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번듯한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 없긴 서울도 마찬가지다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시 내려가려고 생각하다가도, 4년 동안 농사짓다 빚진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이 빠지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못 되었는가 분석을 한번 해 보자. 왜 나는 농사에 실패를 하였는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농사인데...

그리하여 노트를 펴놓고 지난 세월 농사를 지은 경과들을 적어가며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정신이 펴뜩 들었다.

“그래! 모두가 내 잘못만은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 물론 내가 잘못하거나 날씨 문제 등 운이 나쁜 것도 있지만, 이젠 뭔가 다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으로 며칠 간을 골똘히 지낸 나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제 내려가면 그동안 했던 4H운동이나 새마을 운동하고는 다른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당시 언론을 통해서나 들었던 가톨릭농민회·기독교농민회라는 이름이 생각났고, 이들은 혹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나서, 이왕 내려가기 전에 이들을 찾아보리라고 작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일단 명동성당과 당시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던 기독교 방송사를 찾아가서 물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선 기독교 방송국이 있

던 종로 5가로 갔다. 당시 내가 있던 곳에서 그곳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상접계도 그 건물 7층에 기독교 농민회가 있었다. 당시 소 값 폭락으로 인해 자살하는 농민이 늘고, 전국적으로 가농과 기농을 중심으로 이른바 '소값 투쟁'이 한창이었는데(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좁은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의심스런 눈으로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지금은 바쁘고, 며칠 뒤에 집회가 있으니 그 날 오라"고 하였다. 딱 실망스러웠지만 몇 가지 유인물을 챙겨 가지고 사무실을 나왔다. 이렇게 나와 기독교농민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농민운동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1985년 8월이었다.

농민운동의 싹을 틔우다

추석을 앞두고 나는 다시 귀향하였다. 그리고 농민운동을 한 동네 사는 오정면 씨를 들에서 만나 은근히 얘기를 건넸다. 그러자 의외로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이분을 시작으로 주위의 선후배들과 의견을 모은 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리하며 가을을 보내고 겨울 농한기를 맞아 '농민교육'에 참여하였다. 당시 서대문에 있는 선교교육원에서 3박 4일간 받은 교육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히 '은혜 받았다.' 농민운동의 본질이란 강의를 듣고, 그 동안 혼자서 정리되지 않던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명료하게 정리되었고, 권익 투쟁 방안을 들으면서 그동안 관행으로 알고 당해왔던 많은 부조리한 문제들과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불의한 독재정권에 대한 투지에도 불을 붙였다.

다 알다시피 그 당시는 전두환 군사독재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인 데다가, 특히 상주는 전두환의 동서인 김상구라는 이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세도를 부리던 때였다. 온 동네 좀 젊은 사람은 모조리 '평생동지'라는 민정당원이었고, 민주화니 농민

회니 하는 말은 씨도 없던 동네였다.

해가 바뀌어 1986년이 되었고, 우리는 우선 교육에서 들은 쉬운 일부터 고쳐보기로 하였다. 즉, 적십자 회비 강제 징수 반대, 시청료 납부 반대, 규산질 비료 강제 판매 반대 등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는 일부터 해나갔다. 그러면서도 농민회란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꺼내지도 않았다. 농민회=불순세력 내지는 용공좌경이라는 의식이 굳어져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호응도 있어 꽤 성공적이었다. 그 해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꽃길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하였다. 즉 큰 길 양쪽으로 구간을 나누어 마을 별로 할당을 해서, 산에서 진달래 나무를 캐다 심고 살 때까지 물을 주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강제로 시켰고, 모든 마을에서는 당연히 할 일인 것처럼 실시하였다.

어느 날 마을 앞 야산에 사람들이 수십 명 몰려와 무얼 캐길래 가보니, 십리 밖 들판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진달래 나무를 캐러 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장 그만 두라고 하고 산림법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군청에서 하라고 한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나는 그 중 이장이라는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 보는 앞에서 군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산에서 진달래를 캐라고 시켰는가? 그렇다면 산림법 위반 아닌가? 군수가 법을 위반하도록 시켰는가? 하고 따졌더니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 그냥 꽃길 가꾸기만 하라고 했지 산에서 나무를 캐라는 말은 안 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따라온 이장에게 확인시키고는 돌려보냈다. 며칠 뒤 우리 마을에도 이런 짓을 하라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반대하여 끝까지 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경계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었음을 나중에 알았다.

그 해 여름에는 처음으로 농활(農活) 학생들을 받았다. 그 때만해도 대학생들이 농활하러 갔다가 동네에서 쫓겨 나는 일은 흔하였다. 대구의 계명대학교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이 오자 경찰과 행정기관, 심지어 농협까지 난리가 났다. 매일 형사들이 마을에 와서 보초를

서며 학생들의 활동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마을에는 “이러다가 큰일난다”는 말이 나돌았고, 우리는 마을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당한 우리는 한편 분하면서도 더욱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탄압과 위기

대학생 농활에 대한 탄압은 교육계까지 동원되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장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훈시를 하였다는 것이 마을에 사는 학생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들이 불러도 절대로 가지 말 것이며, 대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며 어떤 짓을 하는지 자기에게 일러바치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즉각 질의서를 써서 ‘000교장 망언 규탄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교육장 앞으로 보냈다. 교육의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였다는 것에 분노하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며, 이 일을 고리로 그 동안 농활탄압에 대한 반전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일은 나중에 엉뚱하게 번져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 마을에 농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먼저 농활이 끝나는 성주에서 해단식을 하는데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던 길에, 시외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유인물을 뿌리며 갔는데, 중간에 면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가서, 중간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철이라는 회원과 내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기농 본부에서 발행되던 「농민신문」과 민통련에서 발행한 「민중의 소리」 등을 뿌렸는데, 이것으로 인해 즉심에서 구류 15일을 받고 유치장엘 들어가게 되었다.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마을이 왈각 뒤집혔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식으로, 그 동안 ‘큰일난다’던 말을 확인시켜 주는 격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내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 대학생 농활은 끝나고, 남은 회원들은

동네에서 완전히 위험한 인물이 되어, 이웃집 사람이 말도 하지 않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0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와보니, 매일 내 방에 와서 놀던 후배들이 아예 발길을 끊었다. 이 건 심각한 상황이었다. 제대로 농민운동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잘못 하다간 동네에서 쫓겨 날 판이었다. 나는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자신을 책망하면서도 숨을 대책을 논의하였지만, 별 뽀족한 수가 없었다. 그냥 더 두고 보는 수밖에.

아! 8·12 대첩

그러던 중 느닷없이 경찰이 찾아와, 위에서 말한 교장의 행위를 두고 교육청에 질의서를 보낼 때 대표자로 이름을 넣었던 오정섭 회원을 구속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무고죄라는 것이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되었다고 직감했다. 다음은 누구 차례라는 말이 나돌았고, 공무원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이 사람들은 일단 유사시 우선 총살감”이라는 등 살벌한 소리가 우리를 두고 나돌았다. 아무도 우리 집에는 찾아오는 이들도 없었고, 우리 부모님들과도 대화를 피할 지경이었다. 우리와 같이 활동하던 어린 후배는 부모에게 쫓겨 부산으로 갔고, 그동안 우리 주장에 동조하던 사람들도 아주 발걸음을 끊은 이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 이상한 제의가 들어왔다. 민정당 동책으로 있던 한마을 청년이 “너와 오정면씨가 민정당 국회의원한테 와서 사과하고 농민회를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바로 오정섭이를 풀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농민운동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인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결의했다. 이왕 농민운동을 못할 바엔 장렬히 싸우다 죽자고 결의했다.

당시 농민회원이라고 해야 상주에는 우리 마을에 세 사람밖에 없었고, 경북 기농을 통틀어 봐도, 활동하는 회원은 스무 명이 채 안되었다. 경북기농 총무인 김종길, 성주의 최진국, 박정서, 구미에서 돼

지를 키우던 정택동, 권찬동, 의성의 김영원 장로님의 아들인 김정욱, 안동의 김석현, 청송의 김종일, 이런 사람들이 당시 젊은 사람들의 모두였고, 영주는 일찍 시작했지만 당시 지역 사정으로 거의 활동이 없었을 때였다. 우리는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에서 학생들조차 시위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으나, 일단 일을 벌이기로 했다. 구미의 김종길 총무의 아파트에 모여, '농민운동 탄압분쇄 경북농민 규탄대회'란 거창한 이름으로 8월 12일 상주 장날을 잡아 시위를 하기로 하고, 사건의 진상과 우리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써서 인쇄소에 넘기고, 각각 지역을 나누어 사람을 청하러 갔다. 대구가농(가톨릭농민회)과 안동가농, 그리고 농활왔던 계명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나는 기농 본부로 가서 전국적으로(?)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내가 서울 사무실에 가서 비장한 뜻을 전했으나, 당시 사무국장이던 최종진 형은, 그 날은 전국중앙위원회가 잡혀 있어서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힘이 쭉 빠졌다. 다른 지역에도 사람이 나갔으므로 날짜를 변경할 수도 없었다. 내려오는 길에 충북 영동에 들렀다. 박장균, 김의수 등 3명이 경운기를 타고 '수입개방반대'를 외치고 다니다가 와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3명은 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8월 11일 밤, 우리 마을로 사람들이 모였다. 위에서 밝힌 젊은 회원들이었다. 마을 복판에 있는 우리 집에 모이면 탄로가 날까봐 마을 밖 외딴 데 있는 재실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자며 내일 일을 점검해보니,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었다. 사람도 애초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턱없이 적었고, 가장 중요한 유인물이 내일 못 온다는 것이다. 플랑카드도 준비하지 못했다. 촉박한 시간에 각자 흩어져 인원동원 요청하러 다니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튿날 마을을 지나는 첫 버스를 타면 탄로 날까봐 날이 밝기 전에 걸어서 나가라고 하고 나는 경운기를 끌고 장에 가는 척하고 나

왔다. 시장에서 광목과 페인트를 사서는 상주시내 한복판에 있는 왕산 꼭대기에 가서 플랑카드를 쓰라고 하고, 나는 죽물전에 가서 대나무를 한 다발 사서 경운기에 신고 상주 서문동 천주교회 후원으로 갔다. 당시 서문동 천주교회 주임신부이신 김영필 신부님께는 내일 잠시 모임 장소로 후원을 쓰겠다고 하여 허락을 받아 놓았었다. 나는 미리 그려간 시내 골목 지도를 펼쳐 놓고 만약에 경찰에 쫓기게 되면 성당으로 오는 골목길을 알려 주었고, 영동에서 약속을 지켜 온 박장균이는 내가 사온 대나무로 죽창을 깎았다.

정오에 출발하기로 한 것이 사람들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1시 반이 되어서야 성당을 나설 수 있었다. 다 해봐야 26명이었다. 당시 경북기능회원은 10명도 안되었고, 선산에 사는 대구가농 회원 세 명과 영동에서 셋, 그리고 계명 대학교 학생이 전부였다. 초라하였지만, 김종길 총무와 나는 구속되리라 각오하였기에 8월 12일 한 낮 피악별 속을 농민가를 부르며 거리로 나섰다. “농민운동 탄압하는 군사독재 타도하자”고 쓴 플랑카드를 앞세운 행렬 뒤로는 죽창과 자갈을 실은 경운기가 따랐다. 너른 길을 적은 사람이 점령하여 핸드마이크로 외치는 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너무 작았다.

생전 처음 데모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길 가로 몰려 나왔고, 우리는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며 큰 길을 누볐다. 한참 지난 뒤에 경찰들이 몰려 나와 길을 막았다. 알고 보니 그 날이 공교롭게도 상주, 문경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합동으로 일년에 한 번 하는 데모진압훈련을 하는 날이어서, 점심을 먹고 오침(午寢)하다가 비상이 걸려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을 보자 우리는 흥분되었고, 경운기에 실려 있던 죽창을 들고 경찰과 싸움이 벌어졌다. 실전 데모진압을 해본 경험이 없던 경찰은 별다른 장구를 갖추지 않고 작업모에 경찰봉만 차고 나왔으니, 죽창을 당해 내지 못하고 몇 차례나 뒤로 밀렸고 우리는 정신 없이 밀어 부쳤다. 그러던 중에 최루탄이 터졌다. 뒤늦게 창고에서 가져와 던졌는데, 한참 달아나 뒤를 돌아보니 경찰이 오히려 도망가고 있었다. 영검결에 방독면도 쓰지 않고 사과탄을 까 던

졌는데, 바람이 경찰 쪽으로 불어 자기들이 다 덮어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대오를 정비하여, 죽창을 길바닥에 내리치며 박자를 맞춰 노래를 부르며 로타리를 한바퀴 돌아 서문동 성당으로 돌아왔다. 약 2시간에 걸친 시위를 벌이고, 연행 당한 사람 하나 없이 돌아왔다. 다만 경찰과 싸움 과정에서 의성에서 온 김정옥이 다리를 접질러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바로 택시를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그는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사고(?)를 치고 성당으로 피신하자, 성당에서는 즉시 임시 사목회의를 열어 우리를 '피신자'로 규정하고 참으로 따뜻한 배려를 해 주었다. 신자들이 나와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의성에 계시던 류강하 신부님까지 오셔서 경찰과 접촉하며 수습하는데 애를 쓰셨다. 구속을 각오하고 농민운동탄압에 정면으로 저항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무모하게 일을 벌인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동적인 배려였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 날 전국중앙위 회의를 하던 기농 본부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농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를 중단하고 관광버스를 맞춰 모두 상주로 내려 오셨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줄이 거니와, 우리는 이 날의 싸움을 '8·12 대첩'이라고 우스개 삼아 이야기하곤 하였다. 이 사건으로 우리 상주에서의 농민회의 위상은 높아졌고, 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와 회원이 된 사람도 여럿이 생겼다. 그리고 이 싸움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울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후 경북기농의 발전에도 상당한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농민 운동발전에도 적지 않은 충격과 자극을 주었다고 자부한다.

구속되었던 오정섭 회원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농민운동을 탄압하려고 무리하게 구속시킨 것이 결국 입증된 셈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27일, 농민회 창립 회의도 못하게 원천봉쇄하는 경찰과 맞서 싸우며, 회의장으로 잡아 놓은 서문동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에서 창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도 상주농민회를 출범시켰다.

그 이후에도 농민운동은 이어지지만, 내가 초기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초창기인 그 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기록하고 싶어서이다. 그리고 한 사건을 두고도 각자가 썼던 자리와 맡은 역할에 따라 보고들은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 연

내가 농민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많은 분들과의 인연은 나의 삶에서 참으로 값진 보배라고 여겨 감사한다. 여기에 일일이 그 분들의 이름을 다 적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지금은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천에 사시던 최순봉 장로님, 언제나 중후한 인품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셨는데, 나는 그 분이 돌아가신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어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 양주석 장로님, 이 어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소식을 들었지만 잊을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최종진 형, 그 분을 통해 나는 농민 운동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을 낮추고 회원뿐만 아니라 농민운동을 반대하는 농민들까지도 사심없이 사랑한 그는, 내가 아무리 닦으려 해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스승이다. 7년 전에 돌아가시어 지금은 마석 모란 공원묘지에 누워 계시지만, 나는 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그 분에게 묻곤한다. “형님 같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다. 농민운동도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이념도 변하고 주장도 변한다. 나의 인생도 그렇게 변해왔다. 학창시절에는 내가 농사를 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나, 20대의 한창나이에 돈벌어 공부하겠다고 농사를 시작한 것이 농민운동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다. 기농으로 시작해서 전농으로, 지금은 가농에서 활동하면서 유기농업을 하며 또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다. 가끔 내가 농민운동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젠 머리도 수염도 반백(半白)이 되어 '강호(江湖)에 병이 깊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겠다. 그러고 보니 나도 강호에 병이 깊어졌구나. ❶